

탄핵정국 혼란에 '실손보험 개혁안' 좌초 위기

병원協,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
보험개혁 실손보험 개선방안 안전
비급여 관리 빠진 반쪽 회의 우려
연내 개혁안 발표 가능성 불투명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혼란으로 실손보험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개혁안이 무기한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내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사실상 어려운 전망이다. 의정 간 대화 창구가 막히고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서 좌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연내까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표류 위기에 놓였다.

또한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달 비급여·실손보험 중심의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불참으로 발표 여부가 확실해

졌다. 의사단체인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 병원 3단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개혁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의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

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현재로서는 모든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는 16일 개최될 보험개혁회의에는 '실손보험 개선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상향, 비급여 이용 횟수 및 보장 한도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의료개혁에서 다뤄진 비급여 관리 강화 관련 내용은 논의하기 어려울 전망이 나오면서 반쪽짜리 회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를 수반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도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미궁에 빠지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주요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모두 손해율이 악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실손보험 개혁 드라이브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속에서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안은 손보업계의 숙원 보다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사업의 연속성과 실손보험의 체계가 지속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라며 "비급여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서 의료계를 유도했고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봤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우리카드 광화문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오른쪽)과 다코타 스미스 호퍼 공동 창립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카드

우리카드-HTS 업무제휴 협약 체결

우리카드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 '호퍼(Hopper)'의 운영사인 HTS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카드 광화문 본사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에는 박완식 사장과 다코타 스미스(Dakota Smith) 호퍼 공동 창립자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제휴 계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행 플랫폼 개발을 도모한다.

HTS가 보유한 공급망과 여행서비스 기술력을 활용한다. 전 세계 항공권과 숙박 정보 등 여행 관련 서비스를 다각화한다. 데이터 분석 기반의 수익성 높은 핀테크 상품개발을 예고했다.

하나카드 CCM 3회연속 획득

하나카드가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CCM)'을 3회 연속 획득했다.

CCM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심사를 통해 최고경영자(CEO)의 CCM 전략이 통했다고 평가했다. 전사적으로 CCM 관련 성과 지표를 구성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채널을 통해 수집한 고객의 소리(VOC)를 별도로 관리한다.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

신한카드 싱가포르서 결제시 캐시백·경품 증정

신한카드가 '윈터 홀리데이 인 싱가포르! 신한카드 들고 고고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한마스터카드 싱가포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시 합산 이용금액의 10%를 돌려준다. 내년 2월 28일까지 이용분이 대상이다. 합산 이용금액 최소 기준은 10만원, 캐시백 최대 금액은 3만원까지다.

합산 이용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합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리모와 캐빈 트루스트 캐리어를 지급한다. 이어 150만원 이상인 고객은 애플 아이패드 프로를 제공한다.

오는 27일까지 오차드 로드 마스터카드 리워드 제휴 쇼핑물에서 쇼핑 바우처를 제공한다. 신한 마스터카드 300싱가포르달러 이상 결제하면 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연임? 새 회장?... 관심 집중

現 회장 임기 2개월 남짓 남아
업황 악화 속 회장 역할론 대두



의 연임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저축은행 출신으로 저축은행 실무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업권의 목소리를 내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 회장은 취임 당시 공약으로 연봉 50% 삭감을 내걸면서 진정성을 내비친 바 있다. 오 회장은 취임 이후 약 3년간 임금의 50%만 수령했다.

업황 악화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오 회장의 역할론이 대두된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의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검증된 수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 회장은 HSBC은행을 시작으로 아주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아주캐피탈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하나저축은행 대표직을 수행했

다.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의 운영 실태와 요구 사항을 잘 아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일선 저축은행 또한 대표 임기가 길어지는 추세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OK저축은행을 이끌고 있으며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는 지난 2017년 임기를 시작해 장수 최고경영인(CEO) 중 하나로 손꼽힌다. 장매투 폐퍼저축은행 대표는 올해로 임기 12년차를 맞이했다.

임기가 짧은 저축은행 또한 연달아 연임 카드를 빼들었다. 업황 악화에 안정에 무게를 둔 것이다. 김정수 애규은 저축은행 대표는 지난 8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어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는 지난해 2월 취임 후 올해 1년 연임에 성공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표들 사이에선 오 회장이 임금의 50%

만 받았으니 연임해도 그간의 대표들과 똑같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오 회장을 신임하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귀띔했다.

이같은 업권 분위기에 오 회장의 연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우선 지난 1973년 전국상호신용금고협회(현저축은행중앙회)가 출범한 이래 회장 연임 사례가 단 한 차례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지난 1975~1980년 2·3대 회장직을 역임한 최병일 회장이 유일하다.

위기에 저축은행중앙회장은 항상 교체 수순을 밟았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사태 당시 2009년 임기를 시작한 주용식 15대 회장이 임기를 모두 마쳤다. 이후 2012년 취임한 최규연 16대 회장 또한 연임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끝내 연임에 도전하지 않았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아크로 리츠카운티 특공 경쟁률 251대 1

최소 8억 시세차익에 1.7만명 몰려

당첨만 되면 최소 8억원 시세차익으로 소위 '로또 청약'으로 꼽히는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특별공급 청약에 1만 7000명이 넘게 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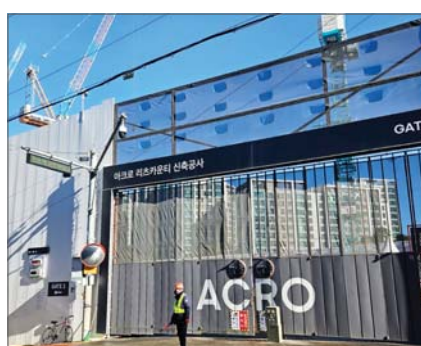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은 251대 1로 집계됐다. 69세대 모집에 1만 7349명이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각각 8053명, 6580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다. 지상 27층, 8개 동으로 총 707가구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 물량은 140가구로 많지 않다. ▲44㎡ 20가구 ▲59㎡ 73가구 ▲75㎡A 16가구 ▲75㎡B 17가구 ▲84㎡D 12가구 ▲144㎡ 2가구 등이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400m 거리인 역세권이고, 1km 내에서 방일초, 서초중, 상문고 등이 위치해 있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들어서는 '아크로 리츠카운티' 신축공사 현장. /안상미 기자

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까지 생활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다.

규제 지역인 만큼 좋은 입지에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났다.

아크로 리츠카운티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44㎡ 14억370만원 ▲59㎡ 16억7630만원 ▲75㎡ 20억6600만원 ▲84㎡ 21억7120만원 ▲144㎡ 38억4170만원 등이다.

인근에 신축으로는 2021년 입주한 '방배그랑자이'의 전용 84㎡가 올해 10월 2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모두 30억원 이상이며, 최고 호가는 33억원이다.

이에 따라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최소 8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